

아동 응급처치, 당황하지마세요

아이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걷거나 뛰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치기 쉽다. 이때 놀란 부모가 허둥대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의학상식만을 믿고 자의적인 처치를 해 상처가 덧나게 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아동 응급처치 요령을 상황별에 맞춰 알아보도록 하자.

글 김제욱(자유기고가) · 도움말 임인숙(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일러스트 이은주

이물을 삼켰을 때

아이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해서 억지로 토하게 해서 안 된다.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 즉시 토하게 하는 것이 좋고 토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숨을 쉬지 않고 얼굴색이 나쁘거나 목에서 쉼썩 소리가 나는 경우, 아이가 축 처져 있고 반응이 느리거나 또는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야 한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토해도 되는 이물이라면 혀 안쪽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등을 두드려 토하게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

아이들의 피부는 얇고 약해 자칫 화상을 입기 쉽다. 조리 중에 튀는 기름이나 뜨거운 물을 따르다 튀는 물에도 쉽게 물집이 잡힐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얼굴, 머리, 손가락과 발가락 전부, 관절, 음부, 항문 등의 부위에 화상을 입었거나 화상 부위가 광범위하고 심한 경우의 응급처치는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 젖은 타월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고 1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화상이라면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상태를 살펴도 괜찮다. 화상의 중증도는 화상을 입은 부분의 넓이와 깊이로 결정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체표 면적의 10% 이상이 화상을 입었다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부딪쳤을 때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 멈추지 않는 구토나 토기, 경련이나 귀나 코 등으로 출혈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응급상황이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도를 확보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토할 때는 구토물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의식은 있지만 상처 부위에서 피가 잘 멎지 않고 기



운이 없어지고 팔의 힘이 약해진다면 상처 부위를 가제나 깨끗한 타월로 눌러 응급처치를 취한다. 머리에 발생한 혹은 따뜻한 타월로 찜질을 해준다면 회복에 도움을 준다. 단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를 먹일 만큼 머리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피부가 긁혔을 때

피부가 긁히거나 벗겨졌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세균 감염이 의심되므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더러운 곳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 상처 안에 모래나 유리 파편, 나무 조각, 금속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 상처가 깊게 파인 경우, 상처가 깊은 경우, 다친 지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처치로는 우선 환부를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타월로 가볍게 닦아낸다. 단 출혈 시에는 너무 오래 물로 씻어내면 출혈이 멎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크다면 끈적거리지 않는 드레싱 거즈로 덮어준다. 12시간 후 드레싱 거즈를 바꿔주고 24시간 후에는 공기 중에 상처 부위를 노출시켜 상처가 아물도록 한다.

베이거나 찢어졌을 때

더러운 곳에서 입은 상처, 지속되는 출혈, 넓거나 깊은 상처, 상처 부위가 L자 모양으로 나 있는 경우, 봉합이 필요한 상처, 상처 부위가 깊은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로는 깨끗한 거즈를 여러 겹으로 두텁게 해서 출혈이 있는 위치에 정확히 올린 후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 최소 5분 이상 지혈을 시도한다. 출혈이 멈추지 않을 시 팔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겨드랑이 밑의 중앙 부분을, 발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대퇴부의 사타구니 중앙부를 누르는 응급처치를 취하고 팔에 출혈이 있을 때에는 심장보다 팔을 높이 들게 한다. 봉합이 필요한 상처는 8시간 이내에 꿰매야 하는데 2시간 이내 봉합을 실시하면 상처의 감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상처 부위가 깊거나 붉게 변하고 부어오른다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상처 안으로는 알코올 등의 소독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서 상처를 입에다 갖다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멍이 들었을 때

멍은 넘어지거나 둔탁한 것에 부딪힌 뒤 피부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발생한다. 피부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그 피가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 색깔이 검푸르게 변하는 것이다. 멍은 피부가 직접 손상 받지 않았으므로 감염 위험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에게 보여야 한다. 원인 없이 이곳저곳 멍이 자주 드는 경우가 있다. 부딪히거나 상처가 난 기억이 없는 데도 멍이 들었다면 다른 질환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단순하게 멍이 든 부위에는 20~30분 동안 얼음을 댄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니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도움이 된다. 보통 멍은 약 2주간 지나면 호전된다. 만일 멍이 생긴 부위에 수포가 생겼다면 수포를 터트려서는 안 된다.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주 지나면 수포는 저절로 마르게 되고 그때 껍질이 벗겨진다. 🌈



* Tip

흉터를 남기지 말자!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딱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시판되는 특수 드레싱 재료를 사용해서 덮어두면 상처에 보습이 유지되면서 딱지가 생기지 않고 개방을 했을 때보다 40% 가량 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인다.

곤충에 쏘였을 때 대처법

벌침 나들이 시에는 곤충을 조심해야 한다.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사탕 등을 먹은 뒤에 반드시 손이나 입 주변을 잘 닦아줘야 쥐아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리지 않는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빨리 빼내 벌침의 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스카드나 신용카드처럼 납작한 판으로 밀어내면 벌침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